

中國의 開放外交와 對 韓半島政策

李 命 守
行 政 學 科

〈要 約〉

1980年代 들어와서 韓國과 中國關係는 급속히 進展되고 있다. 兩國關係는 1970年代 初半까지만 해도 敵對의인 關係를 維持해 왔으나 國際情勢의 급격한 變化, 鄧小平體制下的 實用主義政策 1986年 및 88年 아시아 경기대회 및 올림픽참가, 盧泰愚大統領의 7·7宣言에 따라 最近에는 公式的이고도 直接的인 關係로 發展되고 있다.

北方政策의 一環으로 對中國關係를 改善하고자 하는 韓國측 立場에서 볼 때 이러한 狀況展開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政治的인 면에서 볼 때 韓·中間의 關係改善은 韓半島에 平和를 保障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며, 兩國間的 關係改善으로 中國이 北韓의 武力挑發을 支持하지 않음으로서 戰爭抑制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對 中國關係 改善은 다른 共產圈 國家들과의 韓國에 대한 公式關係를 促進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經濟的으로는 韓國은 中國의 풍부한 地下資源과 擴大한 市場으로부터 利益을 얻을 수 있으며 中國을 韓國의 對共產圈貿易擴大의 前哨基地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兩國間的 交易은 여태껏 韓國이 對美·對日에 置重되어온 貿易依存度를 낮춤으로서 一部國家에 偏重되고 있는 貿易關係를 脫皮하여 經濟의 多邊化를 꾀하게 될 것이다.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制限된 資料이지만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韓·中關係가 鄧小平의 實用主義政策으로 인하여 어떤 變化를 초래 하였는지를 여러측면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韓國에 미치는 影響을 고찰해 보는 데 意義가 있다.

China's Open-door Policy and The Perspective to Korean Peninsula

Lee, Myung s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Starting in the early 1980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s rapidly improving. The two countries stimulated by such factors as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s, pragmatic policies of China under Deng Xiaoping regime, participation in the Asian Games in 1986, 7.7 declaration in 1988 by the Korean President, they are now developing a formal, direct relationship.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which has been seeking an improvement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s a part of North-bound policy, it is a hopeful situation.

Upon improving this relationship with China, Korea will have several benefits. Politically an improved relationship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enduring peace in the peninsular. It would lead to the pragmatic Policy on the part of China that it would not support North Korea's military attack on the South which will keep the North from trying. Another political benefit that Korea can draw from it is that it would facilitate other socialist countries to seek a formal relation with Korea.

Economically, Korea can benefit from China's various kinds of natural resources and a vast market which can serve as a base for Korea's market expanding policies to other socialist countries. Also a trade with China would solve various trading problems that Korea faces with U.S. and Japan and contribute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Korea from these two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various aspects of China's relationship with Korea that starts with the pragmatic policies of Deng Xiaoping and their impact on Korea.

目 次

- I. 序論
- II. 中國外交政策의 基本方向
- III. 中國의 對 韓半島觀
 - 1 中國의 開放外交政策
 - 2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
- IV. 韓國과 中國間의 關係改善策
- V. 韓·中關係의 展望
- VI 結論

I. 序 論

한 國家의 生存 및 發展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國家利益과 이데올로기 중 어느것이 더 優先視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비록 이런 問題에 直面해 있는 國家들 뿐만 아니라 치열한 國際競爭時代에 살고있는 모든 國家들에게 있어서 共通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國家利益과 이데올로기간의 相衡내지 葛藤關係는 오늘날 資本主義國家에서 보다는 共產主義國

家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추세에 따라 韓國을 더욱 필요로 하는 中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1986年末부터 上海 및 北京등의 大都市를 中心으로 大學生들의 民主化 運動은 드디어 87年 1月16日 中國共産黨總書記 胡耀邦을 失脚시키는 重大한 權力構造의 變化를 가져왔다. 이때에 鄧小平은 實權掌握 이후 대담한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을 追求해 왔다.

1970年代 初半까지도 敵對的인 關係를 持續하여 온 兩國은 1980年代 初半을 基點으로 급속한 속도로 關係發展이 好轉되어가고 있다. 鄧小平體制下의 中國政策의 變化, 韓國의 1973年 6·23宣言 이후 積極的으로 推進해온 對共産圈接近政策 및 최근 盧泰愚大統領의 7·7宣言²⁾ 등의 結果로 雙務的이고 公式的이며 直接的인 關係의 展開를 나타내고 있다. 北方政策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中國과의 關係改善을 追求해온 韓國의 立場에서 볼 때 이러한 狀況展開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政治的인 면에서 韓·中國간의 關係改善은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兩國間의 外交 및 經濟關係 樹立은 中國이 北韓의 武力南侵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現實的인 政策表現이 될 것이며 이것은 北韓의 戰爭挑發을 抑制하는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³⁾

다른 면에서 韓·中國間의 關係改善은 韓國과 非修交關係에 있는 共産國家들과의 關係에 影響을 주어 이들 國家와의 修交를 可能하게 할 것이다. 또한 兩國間의 修交는 소련으로 하여금 中國과의 競爭을 통해 韓國과 關係正常化를 追求할 可能性이 높아졌으며 中國이 상당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第三世界國家들과의 協力關係를 強化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經濟的인 면에서도 中國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天然資源을 導入할 수 있는 利點이 있고 擴大한 中國市場을 開拓해 나갈으로써 經濟的 利益을 얻을 수 있다. 또한 中國과의 經濟的交流는 韓國이 지나치게 一部 國家에 依存함으로써 생기는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經濟的 自主性を 提高시키는데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⁴⁾ 이러한 對 共産圈交易을 통해 일차적으로 輸出入市場의 多邊化를 이룩함과 동시에 保護貿易主義를 克服할 수 있을 것으로 通商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共産圈諸國의 世界交易上의 比重은 약10%이며 共産國家 相互間의 貿易을 제외한 東西貿易의 比重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6年 世界20代 輸出國 中 소련이 7위(市場占有率 4.1%) 中國이 16위(市場占有率 1.5%) 東獨이 19위(市場占有率 1.3%)를 각각 차지하고 世界 20代 輸入國 中엔 소련이 6위(市場占有率 4.1%) 中國이 11위(市場占有率 2%) 東獨이 20위(市場占有率 1.3%)를 점하고 있다.

中國 소련을 포함한 東歐諸國은 輸出市場으로서의 잠재력이 커 韓國의 輸出地域多邊化에 寄與할 수 있으리라는 肯定的인 評價가 내려지고 있다. 또 이들 國家의 外資導入 擴大趨勢에 따라 國內企業의 現地 合作進出 機會가 擴大될 수 있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그러므로 中國이 毛澤東死亡 以後 鄧小平體制下에 안으로는 四個現代化와 밖으로는 開放政策의 推進이 韓國의 經濟發展에도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韓·中間에는 經濟的인 相互 補完

1) 姜錫燦, “中共의 國家利益과 이데올로기”, 「現代理念研究」, 第五輯(1987), p. 79.

2) 1988. 7. 7 盧泰愚 大統領이 發表한 主要內容은 「한반도에 平和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北韓이 美國, 日本등 우리 우방과의 關係를 개선하는데 協조할 용의가 있으며, 소련 中國을 비롯한 社會주의 國家들과의 關係 개선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이 선언이후 한국, 헝가리 정부간 88.8.26 상주대표부설치 및 동구권과의 關係개선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3) 申命淳, “韓國과 中共의 關係改善에 관한 方案研究”, 「韓國과 國際政治」, 第1輯(1985), pp. 53~54 參照.

4) 成光鎭, “두개의 中國과 韓國”, 「廣場」, 1982. 3. pp. 79~80 參照.

성이 必要하므로 間接貿易과 다른 형태의 交流에서 利益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것이 安保못 지않게 兩國 接觸關係가 成立되는 重要한 契機가 되고 있다.

주요공산권국가 경제현황(86년)

국 가	경제성장률 (%)	총외채 (억달러)	인 구 (만명)	GNP (10억달러)	1인당 GNP (달러)	수 출 (억달러)	수 입 (억달러)
소 련	1.2	270	28,150	2,356.7	8,370	970	889
불가리아	5.5	48	897	61.2	6,800	145	153
체 코	3.1	40	1,550	143.9	9,280	219	220
동 독	4.3	150	1,664	187.5	11,300	279	276
헝 가 리	0.9	151	1,062	84.0	7,920	154	158
폴 란 드	5.0	335	3,760	259.8	6,930	217	212
루마니아	7.3	64	2,290	137.5	6,030	125	106
유 고	3.0		2,327	145.0	6,220	104	118
중 공	7.8	250	106,100	271.8	260	313	395

(자료: 「동아일보」, 1988.1.27)

이에 本論文은 1970年代 以後의 資料를 中心으로 살펴보지만 最近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對共産圈關係가 肯定的인 發展關係로 展開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假定下에 주어진 資料의 범 위내에서 앞으로 韓·中關係를 眺望해 보는데 目的이 있다.

II. 中國外交政策의 基本方向

어느 國家에 있어서나 外交政策은 그 國家가 겪어온 여러가지 背景의 制約을 받기 마련이다. 中國의 外交政策도 주어진 諸般 環境의 影響을 받아왔다.

그러한 影響中 가장 重要한 것은 歷史, 地政學의 要因 및 經濟, 國內政治關係라고 하겠다. 最近 中國의 外交政策은 歷史的인 制約은 덜 받고 있으나 地政學, 經濟 및 國內政治의 影響을 더 받고 있는듯이 보인다. 이것은 毛澤東이 死亡한 뒤 鄧小平은 10年間의 文化大革命으로 荒廢化된 中國을 再建하기 위해서는 우선 現代化建設이 必要하고 政治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鄧小平은 80年 元년에 80年代의 目標課題로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하였다.⁵⁾

첫째, 霸權主義에 반대하여 世界平和를 維持할것, 둘째, 臺灣의 祖國復歸를 도모하여 祖國을 統一할 것, 셋째, 經濟建設을 서둘러 四大現代化를 實現하는 것이다. 이 셋의 목표중 現代化建設에 重點을 두고 있다.⁶⁾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平和로운 國際環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國際關係의 安定을 促進하여 經濟發展을 이룩함으로써 臺灣과의 統一을 可能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化計劃은 實用主義的인 改革, 開放政策, 經濟特區와 같은 대담한 實驗, 대폭적인 外資依存에 바탕을 두고 있다.

5) 金潤煥, “中共의 4大現代化와 經濟改革”, 「亞細亞研究」, 第xxx卷, 第2號(1987.7) pp. 276~277 參照.

6) 鄧小平, “當面的 情勢와 任務에 대하여”, 「鄧小平文選」, 1983.3 稻桓濟, 「中國市場의 참다운 이해」, PHP研究所, 1986, p 12.

鄧小平路線이 確立된 것은 1978年 12月 中國共產黨 第11期 中央委員會總會(3中全會)에서이다. 1975年 周恩來가 政治活動報告에서 새로운 國家目標로 提示한 農業, 工業, 國放, 科學技術의 4個現代化目標을 黨路線으로 再確認하였다. 지금까지 固守해 온 階級鬭爭을 止揚하고 全黨의 活動의 重點을 社會主義的인 近代化推進에 둘 것을 決定하였다. 즉 우리는 安定團結의 政治局面을 實現하고 長期에 걸친 有効한 各種 經濟政策을 堅持 回復하여 더우기 새로운 歷史條件과 實踐體驗에 立却해서 重大한 經濟措置를 採用하고 經濟管理體制와 經營管理方法의 改革을 하며 自力更生下에서 世界各國과 平等互惠의 經濟協力을 積極的으로 發展시켜 世界의 先進技術과 先進設備導入에 注力하고 더우기 現代化 實現에 필요한 科學과 教育에 注力한다"는 것이다. 특히 ① 國際安保의 鞏固化, ② 政治的 統合과 強大國으로의 發展 ③ 領土의 統一, ④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完遂, ⑤ 經濟的 近代化 등을 그들의 主要 國家利益으로 看做하고 있다.⁹⁾ 이를 위한 努力으로 中國은 現在 共產陣營에서 소련을 孤立시키는 한편, 軍事的 威脅으로부터 脫皮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國際舞臺 및 아시아 아프리카 등 소위 第三世界에 대한 自國의 發言權과 影響力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으며 經濟的인 後進性에서 脫皮하고자 四個現代化計劃으로 代表되는 實用主義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⁹⁾

한편, 中國의 外交政策目標, 動機 및 그 類型은 學者에 따라 竟見을 달리하고 있지만 通說은 없다. 노스(Robert C.North)는 毛澤東思想을 마르크스-레닌-스탈린 主義의 結合體로 中國의 環境과 需要에 符合되고 있는 것으로 前提하고 中國의 外交政策이 주로 毛澤東思想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中國外交의 이데올로기의 측면을 強調하였다.¹⁰⁾ 다른 見解를 가진 學者들은 安保, 經濟등과 같은 國家利益이 中國外交政策의 主要 決定要因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¹¹⁾ 양쪽 측면을 절충하는 설이 보다 더 說得力이 있다고 보겠다.¹²⁾ 다른 強大國의 外交政策과 마찬가지로 中國의 外交政策 역시 世界戰略과 國家目標라는 틀에 의해 決定된다. 中國은 四個現代化¹³⁾를 通해 다음 世紀初까지 社會主義強國을 建設하겠다는 野心的인 計劃目標를 設定해 놓고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므로 胡耀邦, 鄧小平같은 實權者들이 수차례 강조해 온 바와같이 1차적인 戰略目標를 平和的인 國際環境造成에 두고 있으나 世界革命이라는 公극적인 目標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現段階에서 中國의 世界戰略 目標는 國家利益의 측면에 있어서 ① 第三世界의 反霸權運動을 展開하여 미, 소로부터 오는 威脅을 弱화시켜 現代化에 필요한 安定된 國際環境을 造成케 하고 ② 世界力量轉化의 1단계 目標인 社會主義強國을 實現하기 위해 美·日 西方國家

7) 「北京日報」, 1979. 1. 21.

8) Joseph Camilleri, Chinese Foreign Policy: The Maoist Era and its Aftermath(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0), pp. 21~26; 羅昌柱, 「中共의 外交政策論」(서울·一湖閣, 1981), pp. 31~37.

9) 姜錫燦, 前掲書, p. 82.

10) Robert C. North, The Foreign Relations of China(Encino, CA: Dickenson Publishing Co. Inc., 1974), pp. 1~2.

11) Norman J. Padelford and George A. Lincol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Macmillan Co., 1967), pp. 198~204; Raymond W. Duncan, The Communist Powers and the Third World", Problems of Communism, Vol. xx11(Nov-Dec 1967), p. 85.

12) Robert G. Sutter,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the Culture Revolution, 1966-1977(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 4.

13) '4개현대화정책'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 현대화 정책에 온 국력을 쏟고 있으며 계획기간을 다음 세기초까지 연장하였다.

들에게 接近하여 經濟利益 및 科學技術을 獲得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①美·日 西方國家들로 하여금 소련과 長期間 代置케하여 이들 相互間의 힘을 弱화시키고 ③ 世界革命論에 立却 '天下大亂'의 局面을 기다려 第三世界를 團結시키고 強力한 統一戰略을 形成하여 段階的으로 世界革命을 達成하는 目標을 設定하고 있다.¹⁴⁾ 여기에 中國도 世界の 勢力均衡과 周邊情勢에 反應하면서 自國의 國家利益을 定義하고 追求해 온 것이 事實이다.

時期에 맞게 1983年 5月 中國民航機 拉致事件으로 始作된 韓國과 中國間의 直接的인 接觸은 國交가 없는 두나라 사이에 '國家對 國家關係'의 定立 可能性을 提高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東北亞細亞에 새로운 勢力均衡의 패턴을 造成시켜 왔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5여년간 東北亞 國際情勢의 主要 變數는 주로 中國에 의해 提起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와 隣接性으로 因하여 어느 周邊強大國보다도 더 韓半島情勢 變化에 敏感한 反應을 보여왔기 때문에 中國의 對外政策 變化에 대한 正確한 理解는 韓半島의 政治的 將來에 대한 理解와도 밀접히 關聯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中國外交政策의 分水嶺은 1969年이었다고 보는데는 별 異議가 없을 것 같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우수리江邊에서의 中·蘇武力 충돌 이후 中國은 對外政策에서 一代轉換을 試圖해 왔기 때문이다. 以前까지만 해도 中·蘇紛爭의 焦點은 本質的으로 共產主義運動의 이데올로기와 指導力 및 基本政策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9年부터 中國은 中·蘇紛爭의 理念的 次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非共產 資本主義國家들을 包含한 對蘇聯合戰線이라고 하는 戰略的 포위망을 構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에 地政學的으로 中·蘇紛爭은 北韓에 대한 共同支授을 어렵게 하였고 美·中國 和解 以後 美·日·中國間에 戰略協力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 結果 中國도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韓國으로 하여금 中國과 關係改善을 開拓하게 만들었다.¹⁶⁾

III. 中國의 對 韓半島觀

1. 中國의 開放外交政策

趙紫陽 中國首相은 86年3月 開催된 第6期 全人大 第4次會議에서 '獨立自主의 平和外交政策'을 發表했는데 그중 對外經濟開發에 관한 基本原則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밝힌바 있다.¹⁷⁾

즉 中國은 長期에 걸쳐 對外開放을 實行하고 互惠平等을 基礎로 各國과 經濟貿易, 技術面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擴大 發展시켜 나가겠다고 強調하면서 특히 中國의 開放政策은 全世界에 대한 것으로서 資本主義國家나 社會主義國家는 물론 先進國이나 開途國을 불문하고 모두에 대해 똑같이 開放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해 6月14日 鄧自身이 中國·北韓友好條約締結 25周年을 맞아 北韓의 党政代表團을 인솔하고 北京을 방문한 北韓副主席 李鍾玉을 만난자리에서 全面的인 經濟體制改革에는 一部

14) 叢成義, "中共의 第三世界外交政策", 「中蘇研究」, Vol. x, No. 4 (Winter 1987), pp. 59~60.

15) 張達重, "中共 對外政策의 基本路線과 변용", 新東亞, 1983. 7 參照.

16) Byung-Joon Ahn, "The U.S.-Japan-PRC Triangle and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3, No.3(Summer 1979), pp. 163.

17) 康取, "中共의 開放經濟와 韓·中共 교류전망", 「공산권연구」, (1987. 4), pp. 22~23 參照.

政治體制改革도 포함되어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西方先進資本主義國家의 資本과 技術을 絶실히 바라고 있다.¹⁸⁾

中國이 近代化를 위해 經濟的인 측면에서 市場經濟概念의 導入등 對內改革과 對外開放을 促進한지도 이미 8년째 접어들어 그동안 經濟現代化는 曄曄한 成長을 거두운편이다. 中國指導者들은 經濟發展을 뒷바침하기 위해 여러가지 法律制定을 再整備했고 各 分野에 스며 들고있는 自由化의 氣運을 어느정도 受容하느라 努力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놓은 經濟發展의 成果를 다지고 더욱 發展시키기위해 政治改革도 손을대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다.

특히 1970年代부터 西方國家들과 積極的으로 開放外交를 평으로써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中國은 開放外交를 성급히 서두르고있으며 그 變化가 韓半島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韓國周圍에서 급격히 일어나고있는 情勢變化를 正確히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韓國外交政策도 定立할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다.

現在 분주히 進行되고있는 中國의 對外政策을 檢討해 보면 中國外交目的과 戰略의 大方向에는 큰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變化가 있다면 外交政策의 目的을 具現하는 具體的인 方法에서 찾을 수 있다. 中國外交政策이 점차 開放的이고 能動的으로 進展되고 있는것은 그만큼 中國이 安保와 經濟發展에 급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련과의 競爭뿐만 아니라 國內에서 進行되고있는 現代化課業을 위해서도 보다 能動的인 開放外交가 必要한 것이다.

中國外交에 나타난 또 하나의 變化는 中國과 소련이 여태껏 北韓을 둘러싸고 展開해 온 競爭이 韓國에까지 波及되고 있다는 것이다. 兩大共產國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韓國問題를 擧論하고 있음은 분명히 그들이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認識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지난 88올 올림픽의 소련및中國의 참가는 韓國의 國力伸張및 經濟的發展을 소련에게 보여 주었고 中國이 韓國을 再評價하는 決定的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中國은 北韓과의 깊은 同盟關係때문에 韓國에 대하여 과감한 接近政策및 法的 認定은 敢行하지 못하고있는 實情이다. 그렇지만 中國은 1972년에 美國과 和解를 시작하자, 中國의 立場에서는 韓國과 交流하는것이 緊張緩和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라 생각하였다. 극히 制限된 領域에서 通信등의 接觸이 始作되었다가 1970年代末부터 間接貿易과 僑胞訪問이 實現되었고¹⁹⁾ 이때부터 中國이 北韓의 好戰性을 牽制하며 韓國과도 實質的인 利益을 模索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될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또한 1978年 8月 日本과 平和友好條約을 調印한 것은 東北亞에 있어서 그동안 나타나고 있던 四強均衡體制를 더욱 公式化한 結果를 가져왔다. 따라서 中國도 이러한 均衡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支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中國이 日本과 關係改善을 하고 美國과 國交를 正常化하는 것은 韓國에도 바람직한 現狀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볼 때 北韓과의 關係 때문에 中國은 韓國과 積極的인 接觸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므로 現情勢變化는 美國과 日本의 對韓影響력을 더욱 증가시켜 준 셈이다.²⁰⁾

中國의 開放外交는 中, 蘇競爭을 韓國에까지 波及시켰다. 中國은 公式的으로는 韓半島問題

18) 「東亞日報」, 1986. 7. 19.

19) Byung-Joon Ahn, "South and the Communist Countries", Asian Survey, Vol 20, No.11(November 198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098~1107 參照.

20) 安秉俊, 「中共政治外交論」(서울 博英社, 1986), pp. 345~348 參照.

에 대하여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지만 非公式的으로는 '하나의 民族 두개의 國家'란 現實을 認定한다. 그러나 中國이 北韓에 대하여 갖는 効率的인 意圖는 어디까지나 北韓政權과의 關係를 持續하는데 主 目的이있고, 소련세력을 막자는데 置重하고 있다. 美地上軍이 韓國으로부터 撤收하는 方法에있어서 中國과 北韓의 意見은 다소 다르다. 金日成은 美軍의 「完全 및 即刻撤收」를 원하지만 鄧小平은 단지 「完全撤收만 支持한다. 이것은 美軍이 韓國으로부터 성급하게 撤收한 뒤 武力衝擊이 發生한다면 中國은 韓半島의 戰爭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中國의 經濟建設에도 크다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여기에 蘇聯은 中國과 北韓의 密着關係를 意識함으로써 韓國의 閣僚, 記者, 學者들의 蘇聯入國을 許容하였으며 1978年 UN총회에서는 韓半島問題를 言及하지 않았다. 이렇게 現實的인 政策을 取하는 소련은 韓國과 非 政治的인 部分에서 接觸을 피하고 共同的 利益을 模索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韓國에 있어서 소련의 影響力이 增大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人民日報」는 美·蘇가 韓半島分斷을 永久化하는데 野合하고 있다고 비난한바 있다. 소련은 이에 應酬하여 中國이 美國과 結託하여 美軍撤收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와같이 中·蘇는 韓國에대하여 各별한 關心을 갖고 相對方의 對 韓政策을 비난하고 있는것은 다소 새로운 느낌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韓國이 獨自的으로 어떤 外交努力을 기울인 結果라기 보나는 中·蘇兩國의 利益相衝에서 派生된 現象인 것이다. 따라서 中國이나 蘇聯이 韓國에 대하여 새로운 關心은 증가했지만, 그들이 取할 行動에는 限界가 있다. 이 結果 中國과 蘇聯이 韓國을 둘러싸고 論爭하고 있는것은 逆說的으로 美國과 日本의 對 韓半島影響力을 增加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情勢로 韓國安保는 美國이 차지하는 位置가 그만큼 크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中國의 開放外交는 長期的으로 韓半島에서 平和를 維持하는데 有益할 것이다. 그것은 中國도 韓半島에서 戰爭을 원하지않는 점에서 美國 및 日本과 同一한 理解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또 中國外交가 美國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피할수록 美·日이 中國外交決定에 갖는 影響力도 그만큼 增大된다.

美·日は 韓國의 友邦國이므로 韓國은 이들의 外交와 仲裁를 통해서 中國에게 韓國外交의 目的과 利益을 傳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美國과 日本은 中國이 北韓을 牽制하여 韓半島에 武力衝突이 일어나지 않게끔 努力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은 中國의 開放外交가 美·日の 影響力을 增大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²¹⁾ 最近 進展되고 있는 中·蘇關係의 改善은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調停에 有利한 環境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從前에 보여주었던 中·蘇紛爭이 現在의 關係改善으로 持續될 경우 北韓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던 北韓, 中國, 蘇聯과 個別的 雙務關係는 새로운 형태의 「北方三角關係」의 定立으로 改編되어 갈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이 나타나는 「北方三角關係」는 50年代의 것과는 그 性格이 다르게 나타날 展望이다. 그것은 50年代 北方三角關係가 革命과 理念的 一致性的인 原動力이되었던 同盟關係의 性格을 띠고있으나 새로이 나타날 「北方三角關係」는 革命과 理念보다는 國家利益과 相互主義 및 現實主義에 基礎하고 同盟關係의 性格에서 脫皮해 갈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이 展開될 「北方三角關係」나 中·蘇關係改善은 過去の 北韓에대한 片面的 支援보

21) 上掲書, pp 386~390 參照.

다는 冒險性 極左의 政策路線에 대한 統制機能으로 나타날 展望이다. 그리고 中·蘇關係의 改善으로 北韓에 대한 中·蘇의 競爭關係를 緩和시킴으로서 中, 蘇의 北韓에 대한 行動半徑을 提高시키게 될 것이며 이것은 韓國과 中國關係의 發展에 有利할 것이다.

특히 中國의 立場에서 볼 때 北韓의 戰略의 重要性은 蘇聯의 威脅을 主要前提로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中·蘇關係가 改善되어 中國東北部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 偉力이 弱化되는 경우에 北韓의 戰略의 重要性도 그만큼 減少될 可能性이 있다.²²⁾ 그러므로 韓, 中間의 關係發展이 北韓因子의 重要性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要因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韓國은 中國과의 關係를 發展시켜나갈 수 있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2.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中國이 全世界와 아시아地域에 대하여 갖고 있는 視覺부터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中國의 對 韓半島視覺은 中國의 對 世界觀 및 對 東北亞戰略利益과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韓半島를 對東北亞政策의 一環으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中國의 世界觀 및 地域戰略의 脈絡속에서 對韓半島政策을 分析해야 한다.

中國은 現代化를 그들의 希望대로 20世紀가 끝나기전 目標達成을 위해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西方世界와 協力을 굳혀왔다. 뿐만아니라 中國周邊에서도 緊張緩和를 바라고 있는 狀況이다.

中國의 새로운 韓半島政策은 이와같은 背景에서 나온것이다. 換言하여 보면 中國은 優先 美國 및 日本과 緊密히 協力하다 보니 자연히 美·日과 깊은 관계에 있는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바랄 수 밖에없는 現實이다.

最近 中國의 韓半島問題 專門家들²³⁾은 情勢認識의 觀點들이 國內學者들의 見解와 별 差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國學者들의 見解를 살려 봄으로서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을 眺望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要約해 보면 첫째, 中國이 韓半島問題에서는 中立의 立場에 있다는 印象을 주려고 상당히 努力하고 있다. 北韓을 가리킴에 있어서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呼稱을 거의 使用하지않고 「朝鮮北方」이라는 用語를 자주 사용하였고 韓國에 대해서도 「大韓民國」이라는 칭호를 使用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종류의 명칭도 固定해서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南北韓을 부를 때는 「朝鮮相方」, 「朝鮮兩方」, 「朝鮮南北」또는 「朝鮮南北相方」이란 表現을 一貫되게 使用했다. 둘째, 韓半島狀況을 비교적 安定된 狀況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점은 北韓과는 反對되는 立場을 취했다. 北韓은 항상 「美·日·韓三角軍事同盟」을 비난하고 美國과 南韓이 戰爭準備와 核戰爭挑發에 沒頭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中國의 韓半島專門家들의 見解에는 이런 言及이 나오지 않고 있다. 셋째, 南北韓의 對話와 和解를 두드러지게 強調하고 있다. 여기에 關聯強大國들은 그것을 積極의으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力說하고 있다. 이것은 中國이 北韓의 「軍事冒險主義」를 결코 支持하니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公通된 見解를 뒷바침해주고 있

22) 박두복, "중공의 대외정책의 기본노선과 그변용", 「현대사회」, 29(1988년 봄), pp. 37~39.

23) 중국 외교부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주임이며 한반도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간주되는 타오빙웨이(陶炳蔚) 견해를 참조, 「조선일보」 1988. 1. 1.

다. 네째, 駐韓 美軍의 撤收가 시급히 實現되어야 할 課題로 보지않고 있다. 撤軍問題는 南·北統一의 「先決課題」가 아니며 「朝鮮相方의 和解와 合作이 重大한 進展을 얻을때」 論議될 수 있음을 示唆함으로써 이 問題에 대해서는 비교적 柔軟의이며 妥協的인 立場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全般的으로 韓半島의 再統一을 強調하지 않는다.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에 대해 言及조차 않고 있다. 그들의 立場은 南北韓사이의 關係調停과 緊張緩和 및 和解이며 그 바탕에 友好와 協力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韓半島의 現狀認定을 받아들이고 있는 立場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南北韓에 대한 美·蘇·日·中의 四強의 交叉承認을 中國이 考慮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 다짐한것은 이 案을 強力히 반대하는 北韓의 立場에대한 外交的 保障일 것이다. 이러한 見解들은 現在까지도 변함없는 中國의 韓半島에대한 共通된 見解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公式的으로 中國의 外交政策은 두가지 目標를 標榜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霸權主義」를 반대하는것과 世界平和를 保障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世界的 視覺을 가장 포괄적으로 表現한것은 中國은 永遠히 第三世界에 속한다.²⁴⁾라는 이른바 「三世界論」이다. “中國은 대다수 第三世界國家와 類似한 苦難을 經驗하였고 共同的인 任務과 問題에 直面하고 있으며 第三世界와 함께 단호히 帝國主義, 霸權主義, 植民主義와 鬭爭하는것을 우리의 神聖한 國際義務로 생각한다”²⁵⁾고 주장한다. 1974年二月 當詩 中國黨主席 毛澤東이 提示했다고 하는 이 理論에 의하면 全世界는 三分되어 理解되고 있다. 第一世界는 美國과 蘇聯이며 이들은 霸權國인 同時에 帝國主義國家라는 것이다. 第二世界는 日本, 歐洲및 캐나다로 區成되는데 이들 國家는 다른 國家들을 強壓하지만 그 자신들이 霸權國들에 의하여 壓制을 받는다는 것이다. 第三世界는 中國을 포함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諸國들로서 오랫동안 植民主義와 帝國主義의 抑壓과 착취를 받아왔다. 이러한 經驗때문에 대부분의 第三世界國家들은 抑壓을 반대하고 解放과 發展을 追求하는 아주 강한 熱望을 지니고 있다.

위의 第一世界중에서도 蘇聯이 世界戰爭을 일으킬 수 있는 國家로서 가장 위험한 存在라고 中國은 認識하고 있다. 즉 두 超強大國중에서 蘇聯은 全世界를 支配하려는 霸權主義勢力으로서 攻勢를 펴고있는데 반하여 美國은 現在 劣勢에 處해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의 「第三世界論」에 의하면 蘇聯霸權主義에 대처하기 위하여 全世界에 걸쳐 광범위한 聯合戰線이 形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理念的으로 中國의 立場은 第一및 第二世界에 의한 帝國主義, 植民主義, 霸權主義와 싸우기 위하여 第三世界의 團結과 鬭爭을 提唱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中國은 自國의 戰略的인 利益을 保障하기 위하여 蘇聯霸權主義라는 當장의 위협에 對處하기 위하여 美·日 및 西歐와 聯合戰線을 構築하는 政策을 取하고 있다. 이러한 戰略을 實踐하기 위하여 中國은 1978年 8月 日本과 平和條約을 맺었고 1979年 1月 美國과 國交正常化를 修立하였으며 기타 西歐諸國들과도 經濟, 文化및 軍事交流까지도 擴大해 왔다.²⁶⁾

그러면 中國이 韓半島에대해 取할 수 있는 現實的인 代案은 어떤것이겠는가?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있어 먼저 생각할 수 있는것은²⁷⁾ 첫째, 北韓을 소련편에 가담토록 방관하거나 韓國이 日本의 勢力圈에 編入되도록 傍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中國은 먼저 韓半島問題가

24) 「人民日報」, 1984. 5. 7.

25) 紅旗, 第15期, 1982, p 22.

26) 安秉俊, 前掲書, pp 391~405 參照.

27) 朴俊弘,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서울 博英社, 1985), p 215.

「自主의이며 平和的으로 外勢의 干涉없이 解決되어야 한다」는 北韓의 立場을 支持할 것이다. 둘째, 中國은 駐韓美軍의 完全撤收를 要求하는 北韓의 立場을 實現시키기 위해 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並存의 現象을 받아들일도록 說得하는 方法이다. 中國은 궁극적인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過度的인 段階로 南北並存을 北韓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說得하게 될 것이다. 셋째, 中國은 韓半島의 將來에 대해 緊要한 理解關係를 가지고 있는 韓半島의 周邊 四強大國의 同意와 合議아래 韓半島를 中立化하는 方法이다. 넷째, 韓半島分斷의 固定化를 實質的으로 受諾하고 이 方向으로 北韓을 說得하는 方案이다. 北韓이 蘇聯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위해 北韓이 주장하는 駐韓美軍撤收 口號에 同調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退潮해가는 美國勢力이 中國에 대해 威脅勢力이 아니라 오히려 日·蘇에 대한 牽制勢力으로 보아 美軍을 駐屯시키려는 속셈도 있다.

이런점을 綜合해 볼 때 對韓半島政策의 南北韓에대한 中國 認識을 보면 北韓에 대해서는 韓國戰爭에서 中國軍이 참여한 이른바 抗美援助의 時期以後 아시아에서의 “제일의 戰友”이며 “唇齒之國(interdependent countries)의 關係로 特徵지워지고 있다.

北韓은 朝鮮人民의 唯一한 合法政權이며 中國과 더불어 反帝鬭爭에 共同參與者이다. 특히 中國指導者들은 金日成의 個人的 리더십을 높게 찬양하고 있으며 이른바 思想의 自主, 經濟의 自立, 國防의 自衛리는 自主路線에 立却한 北韓의 社會主義建設業績을 높게 評價하고 있다. 1950年代와 60年代는 이른바 美帝國主義와 共同鬭爭의 必要性, 1970年代는 中·蘇紛爭의 渦中에 北韓의 親蘇化를 막아보자는 속셈이었지만 아무튼 國際社會에서의 北韓의 政策을 支持하는 中國의 役割에 관한 이미지는 中國의 對北韓 影響力行使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最近 對北韓關係에서 조심스럽게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印象을 심어주고 있다.²⁸⁾ 한편 韓國에 대한 態度는 1974년에 들어서는 中國이 韓國을 公式的으로는, 國家로 認定하기를 拒否하였지만, 非公式的으로는 사실상 接觸의 對象國家로 認定한 狀態이다. 韓·中間의 郵便制度 設立에 同意했고 中國에 사는 韓國僑胞들의 書信交換을 許用했으며 韓國訪問을 위한 출국비자도 發行 承認하고 있는 狀態이다. 近者에 와서는 올림픽 및 障礙者올림픽大會에서 大韓航空의 中國領空通過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70年代 末부터는 韓國을 對韓半島 平和維持에 必要한 行爲者로 認定하고 있으며²⁹⁾, 兩國은 「共同利益追求」라는 면에서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더구나 地理的으로 가까우며 經濟發展 측면에서 본다면 韓國은 原料供給地 및 商品市場으로서의 中國을 必要로 하고 中國은 韓國의 經濟發展 經驗과 技術 및 勞動集約의 產業施設 등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두나라의 接近은 必然的 結果인지도 모른다. 韓國의 關聯業體의 資料에 따르면 韓·中交易現況은 87년 홍콩을 통한 間接交易量이 약 12억달러, 直接運送去來 또는 第三國을 통한 交易量이 6억 달러로 되어 있다.³⁰⁾ 특히 韓國의 西海岸開發推進과 中國의 山東半島 및 遼東半島全面開放은 兩國의 交易量이 계속 增加될 展望이지만, 中國이 北韓과의 盟邦關係를 저버릴 수 없는한 韓·中交易關係도 政治關係와 마찬가지로 限界가 있을 수 있다는 見解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兩國의 利益을 考慮한다면 지금보다는 進展되는 速度가 加速化될 것이다.

28) 黃炳茂, “1970年代 韓半島 問題에 대한 中共의 認識”, 「亞細亞研究」, 第xxx卷, 第2號(1987.7), pp. 372~373.

29) 上揭書, p. 397.

30) 「東亞日報」, 1988. 6. 15.

IV. 韓國과 中國間的 關係改善策

東北亞의 力學關係와 中國, 北韓關係의 脈絡속에서 韓·中關係를 利害하여야 한다. 中國이 韓國과 接近하는 理由도 우선 韓半島의 安定을 기하고 經濟的으로 自國의 利益을 增大하며 政治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해서이다. 1983년부터 中國의 對 韓國觀에는 다소 重要한 變化가 생기고 있으며 보다 現實的이고 實用主義的인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現在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改革의 目標은 政治的 旅程에 의해 進行되고 있다. 政治的 領域에 있어서 效率的이고 生動感있는 社會民主主義를 위한 努力으로 國家組織을 合理的이고 自由스럽게 운영하려는 多樣한 계획이 推進되고 있다. 經濟的 領域에 있어서 開放政策下의 두개의 目標인 商業化와 市場化의 計劃이 廣範圍하게 中國全域에 퍼지고 있어 全體的으로 意圖된 計劃이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이 結果 1970年代 初半보다 經濟 및 政治的 霧圍氣가 널리 開放되고 自由스러운 霧圍氣가 高潮되고 있다.³¹⁾

1985年 中國에 있어서 改革의 達成過程은 1986年에 와서는 市民들의 位置가 부상하고 政府의 保守勢力들은 대부분 逐出되었다.³²⁾

개혁의지가 더욱 확고해 질에 따라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中國이 韓國과 接觸하는 動機가 무엇인가하는 問題에 대하여 1981年1月 外交部內에서 당시 外交部長 黃華가 행한 연설의 일부중 “中國은 韓國에 대해 門을 닫고 있지만 자물쇠는 채우지 않았으며 만약 北韓이 蘇聯쪽으로 넘어간다면 中國은 「韓國카드」를 항시 使用할 수 있다.”고 했다.

中國이 1986年 아시아大會와 88년 올림픽 參加로 中國體育이 海外에서 中國의 威信과 影響力을 提高하는데 큰 役割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스포츠를 통한 兩國間的 交流가 본격적인 試全右이 될 수가 있다.

한편 中國과의 敏感한 接觸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지나친 公開活動이나 論議는 非生産的일 수 있다. 外交란 相對方의 事情에 적합하도록 細心한 주의를해서 실질적인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專門的으로 遂行되어야 한다. 現在 中國측이 보이고 있는 接觸의 領域을 계속하고 擴大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民間團體와 入士들이 치밀한 計劃을 짜고 잘 調和된 活動을 展開해야 될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中國이 韓半島를 美·日과 積極的으로 論議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도 우리는 戰略的으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美·日政府와 사전 접촉 및 緊密한 協議를 통하여 韓國의 立場과 利益이 中國에게 反映될 수 있게끔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接觸 및 準備活動이 進行되는 동안 韓國政府當局者 및 學者, 實業家는 中國의 政府當局者 및 學者, 實業家와 直接 接觸하고 交流할 수 있는 길을 여러모로 模索해야 할 것이다. 機會있을 때마다 中國의 有數한 入士들과 國際會議나 行使에서 接觸할 수 있도록 政府當局에서는 積極 支援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通路가 開拓되고 可能한 여러가지 方法을 通하여 中國과 接觸을 模索할 때 韓·中關係는 앞으로 점차 擴大될 展望이다. 이 可能性을 增大하기 위해서는 많은 研究와 努力이

31) Hong Yung Lee, "The Implications of Reform for Ideology, state and Society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7, No 2(Winter, 1986)

32) Stanley Rosen, "CHINA IN 1986 A Year of Consolidation", ASIAN SURVEY, Vol. XXVII, No.1(Jan 198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5.

必要的 것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研究는 安保, 政治, 經濟, 文化, 藝術 등을 포함한 周邊情勢을 파악하여 韓國과 中國이 相互利益을 增進할 수 있는 領域과 方案을 政府·實業界 및 學界가 共同으로 開發하는 政策課題로서도 必要的 것이다. 이미 進行되고 있는 計劃과 活動의 相互間에 派生되는 問題點을 是正하고 效果的인 對應策을 考案하는 研究도 並行되어야 한다.

V. 韓·中關係의 展望

韓·中關係를 北臺로 앞으로 展開될 可能性을 展望해 보면, 安保나 政治面에서 中國은 韓國보다도 北韓을 더욱 重要視하고 있다는 事實을 數次 強調한 바 있다. 더구나 蘇聯과 影響力을 다투고 있는 處地에서 北韓의 反對를 무릅쓰고 中國이 韓國과 國交를 正常化할 수는 없다. 다만 非政治的인 接觸은 北韓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各己 國家利益을 위하여 앞으로도 점차 擴大해갈 展望이다.

北韓의 姜成山首相은 1984年 8月 北京을 訪問했을때 이러한 非公式接觸에 대하여 中國指導者들에게 抗議했다고 한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韓國과의 關係發展을 持續해오고 있다. 그 理由는 東北亞의 安定과 國內의 現代化 計劃에 必要하다고 認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同時에 中國, 美國, 日本에게도 相應한 形態로 北韓과 接觸해주도록 要求해 왔다. 그러면서도 中國當局은 이러한 接觸을 宣傳하기를 꺼려해왔고 韓國側이 그것을 지나치게 公表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中國이 韓國과 實質的인 接觸과 交流를 擴大하는데 노리는 利益은 戰爭을 抑止하고 安保를 確保하는것, 經濟發展에 寄與하는것, 등이다. 韓國도 이와같은 利益을 追求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派生되는 共同利益이 韓·中關係를 改善시켜 왔다. 從前과는 달리 中國은 보다 能動的으로 또는 自主的으로 國家利益을 追求하면서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事實상 認定하고 있다. 이것이 곧 「交叉接觸」에 해당한다.³⁴⁾ 中國은 자신이 毛澤東死後 겪었던 變化를 北韓이 模倣할 것을 內心 바라고 있다. 그러나 強壓하지는 않지만 長期的인 眼目에서 서서히 北韓이 變化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도 韓·中接觸과 交流는 擴大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급한 期待나 極的인 發展을 期待하는 것은 金물이다. 그러한 바램은 오히려 中國으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立場에 處하게 하며, 그 結果 이제까지 精誠껏 쌓아온 業績에 後退를 가져오게할 수도 있다. 反對로 北韓도 中國처럼 改革을 志向하면서 開放의 이고 實用主義的인 政策을 取한다면 中國으로 하여금 보다 果敢하고 積極的인 政策을 韓國에 試圖하게 만들것이다.

中國이 美·日과 平行的 利益을 追求하고, 太平洋地域에서 相互依存되고 있는 政治 및 經濟關係에 깊이 關與하면 할수록 韓國은 中國과 더 密接한 關係를 갖게 될 것이다. 北韓이 反對하는데도 中國은 韓國과 安保認識에서 制限된 共同利益을 갖고, 나아가서 非政治的인 分野에서 危機管理, 間接貿易, 體育, 國際行使, 僑胞訪問 및 學者交流 등을 점차 擴大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發展은 계속될 것이며, 南北對話가 밝게 進展되는 結果를 보인다면 韓國과 直接交流 및 여기에 隨伴되는 接觸도 試圖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主義的인 視角에

33) 「讀賣新聞」1984. 8. 18.

34) 安秉俊, 前掲書, pp. 442~445 參照.

서 앞으로 韓國이 中國과의 關係를 再定立해야 할 時期가 온 것이다. 아무리 中國이 潛在的으로 큰 市場이며, 影響力을 行使할지라도 우리가 中國에게 根據없는 要求 및 과잉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中國自體도 現在 改革派와 保守派間에 葛藤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韓·中關係도 주어진 現實에 基礎해서 漸進的으로 改善될 수 밖에 없다.

中國經濟가 好轉되어 海外에서 資本과 技術을 더 많이 必要로하고 商品需要를 創出하게 될 때 韓國도 中國에 進出할 수 있는 機會를 더 많이 갖게될 것이다. 이에 對備하여 우리는 보다 體系的이고 잘 調整된 對策과 準備를 게을리하지 말고 北方外交에 對備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다.

VI. 結 論

毛澤東死後 中國社會에 나타난 脫이데올로기 현상과 巨大한 變革은 外部世界에 대한 中國人들의 認識에도 많은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그들의 對 韓認識의 變化에도 直接的으로 投影되어 最近 概念的 抽象的 段階를 지나 상당한 具體性을 띠기 시작했다.

즉 中國의 對 韓認識變化는 韓國의 經濟發展이 西太平洋經濟發展의 重要部分을 形成하고 있을 뿐 아니라 亞·太經濟發展成果의 對中國進出에 占하는 韓國의 地理的 位置를 過小評價할 수 없다는 보다 根本的인 評價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中國의 對韓認識變化에 決定的 作用原因은 革命과 理念的 要因이 全面 排除되면서 相對的으로 부각된 國家利益과 合理主義와의 結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長期的으로는 中國과 北韓間의 現存 「血盟關係」를 動搖시키면서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政策을 「二分化」시키는 重要한 契機를 形成해갈 것으로 展望되어진다.

1983年 5月 中國民航機 拉致事件에 의해 아시아가 國際環境의 死角地帶로서의 韓·中關係가 照明을 받기 시작한 이래 東北아시아 國際關係의 重要課題인 中國과 韓國의 關係는 새로운 狀況이 胎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에 대한 韓國의 期待가 커지고 있는 것도 歷史的 文化的 聯關性을 깊이 考察해 보면 충분히 理解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中國의 對外關係는 첫째 政府 對 政府關係, 즉 正式國交關係가 있는 國家의 公式外交, 둘째 黨 對 黨과의 關係,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標榜하는 共產黨 혹은 勞動黨들 사이의 紐帶를 強化하기 위한 外交, 셋째 人民 對 人民의 關係, 즉 民間外交의 3가지 方式으로 展開되어 왔다. 中國은 人民 對 人民의 次元에서 關係를 政府次元의 公式承認이 아직 없거나 이데올로기가 달라 黨次元의 關係가 있을 수 없는 나라와 事實상의 外交關係를 對行하는데 使用하고 있다.³⁵⁾

現在 韓·中間에 展開되고 있는 關係는 세번째 方式인 人民 對 人民의 關係로서, 重要한 것은 이러한 民間次元의 交流가 政府次元의 公式關係로 發展되는 契機로 된 예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兩國間의 關係가 國交修立의 段階까지 發展되는데는 解決되어야 할 問題와 克服되어야 할 障礙要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나 障礙要素들 때문에 兩國間의 國交修立이 永遠히 不可能한 것은 아니며 이들을 段階的으로 克服, 解消될 수 있는 問題들이다. 兩國間의 關係改善의 窮極的인 目的인 國交修立에 대해 樂觀的인 見解를 가질 수 있는 基本的

35) 정종욱, “중공바람의 한 가운데서”, 「한국인」 1984, p. 26.

인 理由는 韓·中兩國 모두가 이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은 어디까지나 社會主義體制的 發展의 維持라는 限界內에서 政治情勢, 내지는 앞으로의 權力構造의 變化에 따라 可變的일 수 있다는 事實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³⁷⁾ 따라서 그동안 취해온 資本主義的 要素의 導入이라는 사실이 尙後 社會主義體制를 離脫하여 西方化로 되지않을까 하는 성급한 期待를 하는 것은 지극히 輕微를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中國의 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은 궁극적으로 富國強兵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強國建設을 위한 過程的 手段으로서의 資本主義接近이라는 事實에 注目하여야 한다. 우리의 對 中國關係도 종래의 硬直된 公산국가의 外交政策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급하게 當장 實利를 본다는 측면을 떠나 安保 및 經濟的 측면에서 實利追求를 위한 平穩한 忍耐과 努力이 그 어느때 보다도 必要한 것이다. 이제 韓·中關係는 序幕을 알리고 있다. 美·中國關係 및 中·日關係가 7年以上의 時間을 必要로 하였듯이 兩國關係도 施行中 豫想되는 失望등에 短期的 診斷을 내리지 말고 끈기와 인내로서 그들을 대해준다면 그들 또한 우리에게 補償을 주게될 것이다.

특히 금년 6·4사태이후 中國의 對 韓政策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6·4(89년)사태에 대해 政府는 침묵을 지켰으나 北韓과 큐바는 재빨리 지지성명을 냄으로써 國際社會에서 北韓은 中國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첫번째 同盟國임을 再確認하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韓國은 對 中國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년 7월(1989년) 제1회 세계무역박람회에 西方各國은 외면하였지만, 대규모의 韓國商事들을 참가시켰다. 그러나 中國박람회 후 한국경제 사절단의 訪中계획이 中國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됨으로써 다시한번 對 中國관계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再考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韓·中관계 개선은 반드시 北韓을 전제로한 中國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周邊狀況 및 中國에 대한 正確한 情報 및 資料등을 入手하여 우리의 外交政策을 自主的으로 確立할 수 있는 機會로 삼아야 하겠다. 이제 周邊環境은 우리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여기에 슬기롭게 對處할수 있는 國民과 政府의 意志가 합쳐질때 中國을 비롯한 對共產圈外交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36) 甲命淳, 前掲書, pp. 97~98 參照.

37) 康叔, 前掲書, p. 29.

參 考 文 獻

1.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韓國과 國際政治」, 제2권 1호, 1986 봄.
2.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韓國과 國際政治」, 제4권 1호, 1988 봄.
3.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韓國과 國際政治」, 제1권 2호, 1985 가을.
4.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韓國과 國際政治」, 제3권 2호, 1987 가을.
5.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연구시리즈 36, 1987. 6.
6. 閔丙天, 「北韓의 對外關係」(서울: 大旺社, 1987).
7. 安秉俊, 「中共外交政治論」(서울: 博黃社, 1986).
8. 高崇雲, 「中共의 東南亞政策」(서울: 敎文社, 1978).
9. 安秉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安保論」(서울: 法文社, 1986).
10. 李相禹, 「中共의 새進路」(서울: 法文社, 1986).
11. 朴河一, 「美國의 對中共戰畧」(서울: 大旺社, 1983).
12. 鄭樂重, 「中共의 權力鬭爭史」(서울: 大旺社, 1983).
13.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8).
14. 민병천, 「韓國安保論」(서울: 大旺社, 1981).
15. 李基鐸, 「韓半島와 國際政治」(서울: 嘉南社, 1984).
16. 金順圭, 「新國際政治論」(서울: 博英社, 1988).
17. 慶南大學校極東問題研究所, 「北韓의 對外政策」 연구시리즈 30, 1986. 8.
18. 金達中, 「中共의 改革政治」(서울: 法文社, 1988).
19. 정진위, 「北方三角關係」(서울: 法文社, 1985).
20. Melvin Gurtov, "China: The Politics of the Opening", Asian Perspective, Vol.12, No 1(Spring—Summer 1988).
21. Daryl M.Plunk, "Sino—Soviet Rivalary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Regional Implic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11, No.1(Spring—Summer 1987).
22. Stuart Kirby, "Russia in the Gorbachev Era: Still Looking East", Vol.10, No. 2(Fall—Winter 1986).
23. Chae—Jin Lee, "The Role of China in the Unifacation Process", Vol.10, No.1(Spring—Summer 1986).
24. Hong N.Kim, "Sino—Japanese Economics Relations Since 1978", Vol.9, No.2(Fall—Winter 1985).
25. Robert C. North, The Foreign Relation of China (Encino, CA: Dickensen Publishing Co, Inc., 1984).
26. Robert G. Sutter,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Culture Revolution, 1966—1977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27. Byung—Joon Ahn, "The U.S—PRC Triangle and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Vol.3, No.3(Summer 1979).

28. Byung—Joon Ahn, "South and the Communist Countries", *Asian Survey*, Vol.21, No 11(November 1980).
29. Hong Yung Lee, "The Implications of Reform for Ideology, State and Society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7, No.2(Winter, 1986).
30. Stanley Rosen, "CHINA IN 1986:A Year of Consolidation", *ASIAN SURVEY*, Vol XXVII, No.1(Jan 1987).
31. Samuel S.Kim, "An Aproach to the Analysis of Chinese Foreign Policy Behavior", *Political Studies Review*, Vol.1(1985).
32. 姜錫燦, "中共의 國家利益과 이데올로기", 「現代理念研究」, 第五輯(1987).
33. 申命淳, "韓國과 中共의 關係改善에 관한 方案研究", 「韓國과 國際政治」, 第1輯(1985).
34. 金潤煥, "中共의 4大現代化와 經濟改革", 「亞細亞 研究」, 第xxx卷, 第2號(1987).
35. 叢成義, "中共의 第三世界 外交政策", 「中蘇研究」, Vol. X, No. 4(Winter, 1987).
36. 張達重, "中共 : 對外政策의 基本路線과 變용", 「新東亞」, (1983.7).
37. 康川, "中共의 開放經濟와 韓·中交流展望", 「공산권연구」, (1987.4).
38. 박두복, "중공의 대외정책의 기본노선과 그변용", 「현대사회」(1988년 봄).
39. 黃炳茂, "1970年代 韓半島 問題에 대한 中共의 認識", 「亞細亞研究」, 第xxx卷, 第2號(1987.7).